

전일동향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481.00원에 마감

2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481.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00원 상승한 1,478.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달러-원을 밀어 올리며 상승해 1,481.0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7.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7.44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8.00	1484.50	1477.50	1481.00	1480.60
	엔화	925.27	930.42	923.97	927.44	-
	유로화	1727.26	1736.33	1724.22	1729.8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9	-3.43	-8.29	-16.1
	결제환율(수입)	-0.14	-2.19	-6.12	-12.5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회피심리 강화에...1,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81.00) 대비 3.00원 상승한 1,482.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지속되는 미-이란 간 신경전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에 상승 전망한다. 간밤 이스라엘 매체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던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혁명수비대와 의 갈등 속 협상팀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강경파가 협상을 주도하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한 반박을 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설치하는 보트를 모두 격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며 향후 협상 불확실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재부상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함에 따라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되었는데, S&P제조업 PMI 예비치는 54.0, 서비스업 PMI는 51.3을 기록하며 두 수치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경제 지표를 보였고, 이는 금일 달러화 강세 압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점 부근에서 유입될 수출업체 매도 물량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7.75 ~ 1486.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20.2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00원 ↑
	■ 美 다우지수 : 49310.32, -179.71p(-0.3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9.6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87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